

지역 소식통

환경음, 만경제재소 화재 피해 복구 성공 줄이어

지난해 12월 17일 새벽, 김제시 만경읍에 소재한 만경제재소(대표 유성기)에 큰불이 나 건물과 지게차, 목재 등이 모두 전소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5억 5,000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김제 지역에 유일하게 소재한 이 제재소는 지난 수십여 년간 만경읍민과 오랫동안 호흡해온 유서 깊은 곳으로 지역주민에게 '문화 모일장' 행사와 각종 공연 등의 이벤트를 제공하는 문화 향유 공간의 역할을 해왔다.

지역사회 내 이번 화재에 대한 구호 여론이 형성됐으며 사회단체 구성원 간 성금 모금에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29일, 만경읍행정복지센터에서 김창환 만경읍장과 지혜란 만경읍 주민자치위원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3백 여만원의 구호 성금을 만경제재소 유성기 대표에게 전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민음병원 '달빛어린이병원' 야간·휴일 진료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 관내 의료기관인 민음병원(김제시 금성로 90)이 야간·휴일에도 문을 여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어 관내 소아청소년들이 야간·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 응급 환자에게 위해 진료를 통한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심사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민음병원은 올해부터 2년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평일 월,화,금요일에는 오후 6시~새벽 1시,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7시까지 일부 요일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달빛어린이병원을 통해 관내 소아 환자가 야간·휴일에 진료받을 의료기관이 없어 인근지역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고 갑자기 아픈 아이들에게 빠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2024 시무식 개최

## '다시 뛰는 김제, 가슴 벅찬 도전!' 비전 제시



김제시는 2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갑진년(甲辰年) 새해 합찬 발걸음을 내딛는 2024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정방향으로 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성장도시, △활력 있는 민생경제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농업도시, △옹비하는 해양항만도시, △함께하는 교육복지도시,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 △신뢰받는 시민소통행정 등 7대 시책을 발표하고 각오를 다졌다.

정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은 민선 8기 2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새로운 반환점을 도는 해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야 하는 매우 중추적인 시기"라며, "어떠한 난관이 가로막더라도 극복해 나가겠다는 승풍과량(乘風破浪)의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무식 시작에 앞서 간부 공무원과 김제시의회의 의원들이 군경 묘지 및 성산공원 충혼탑 참배를 하였으며, 시무식 종료 후에는 정성주 김제시장이 시의회를 비롯, 노동조합, 브리핑룸 등을 방문하여 시정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 유희태 완주군수, "인구 10만, 전북 4대 도시 도약"

### 군정방향 "테크노 완판 초읽기"

유희태 완주군수가 2일 신년간담회를 통해 "인구 10만, 전북 4대 도시 도약으로 새로운 완주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테크노 제2산업단지·농공단지 분양률 100%를 달성하고,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기 조성, 만경강 활성화, 스포츠·관광 중심도시, 3대 복지 진화도시 선도 등을 제시했다.

유 군수는 "테크노 제2산단 완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로전 본사, 진로지스틱, 동원로엑스, BYC, 세방 5개 물류업체 계약과 함께 물류용지 10만여 평은 일찌감치 완판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테크노 제2산단의 분양률은 실계약 기준 83%이며, 투자협약까지 포함하면 90.4%에 이른다.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기 조성은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와 산단 조성 승인을 목표로 사업시행자인 LH·전북개발공사와 전북도와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추진 동력을 구축한다.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도 계속된다. 만경강 재해예방과 환경개선을 위한 치수·이수사업, 국도중주 자연거길



유희태 완주군수가 2일 신년간담회를 통해 "인구 10만, 전북 4대 도시 도약으로 새로운 완주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연장 사업, 만경강 유역 자연·생태 환경 연구 등을 본격화한다.

스포츠·관광 중심도시를 위해 완주관광체육마케팅센터를 활성화해 테마관광상품 발굴과 축구메카 완주, 파크골프 육성 등을 이끈다.

실제, 완주군의 관광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방문객은 2,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내년에는 3,000만 방문객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완주=염재복 기자

이외에도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가족친화도시 3관왕인 완주군은 이들 사업을 계속해서 선도해 나가고 맞춤형 교통복지 등을 위해 공영제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간다.

유 군수는 "첫 국가산단 유치, 대규모 기업유치, 인구 증가로 완주군은 새로운 도약의 시점에 서있다"며 "경제, 복지를 선도하는 미래를 개척해 대한민국 1등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 완주군의회, 2024 승진·전보 임명장 수여

직제개편 2명, 전보 6명, 복직 1명, 신규임용 1명 등 총 10명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는 2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1월 1일자 승진·전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명장 수여 대상은 정재조 사무국장을 비롯해 직제개편 2명, 전보 6명, 복직 1명, 신규임용 1명 등 총 10명이다.

이날 임명된 공직자들은 선서문 낭독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는 공무원으로서 앞으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정재조 신임 사무국장은 "군민의 공복이라는 자세로 친절과 봉사 행정을 펼쳐 완주 발전에 밀거름이 되고, 공직자로서 청렴한 공직자세로 근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남용 의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됐다. 의회 직원 모두가 지방분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



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완주군의회는 높은 곳에 오르면 낮은 곳에서부터 오른다는 뜻의 '등고지배(登高自卑)'를 2024년도 사자성어로 선정, 모든 일을 주민들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순서대로 차분히 진행하고자 한다"며, "서둘러 가는 것보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준비해 우리 의회 모두가 하나의 팀이 돼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김제시의회, 새해 의정활동 시작 알리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2일 김제 군경묘지와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2024년 새해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참배행사는 김제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정성주 김제시장, 황영석, 나인권 도의원 및 김제시 간부 공무원 등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현화와 분향을

하며 경건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김영자 의장은 "2024년 갑진년의 새해 참배를 통해 호국영령과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받들어 역동적이고 흔들림 없는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며 "새해에는 김제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일정 확정

### 김제시, 9월 6일부터 7일까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4년 제2회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 개최일자를 오는 9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축제기간을 지난해 평일 1일에서, 주말을 포함한 2일로 연장해 가족단위 방문객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3세대(代)가 즐길 수 있는 환경 축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첫 포문을 연 새로보미 축제는 버려지는 쓰레기를 새로운 자원으로 본다는 의미의 친환경 축제로서, 축제 명칭을 탄 새로·보미·놀이 3개 존(zone)에서 다양한 자원순환 교육·체험·놀이 공간을 기획, 운영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대한민국 환경축제의 모델이 되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해 첫발을 내디딘 새로보미 축제의 성공적 개최는 민·관간 긴밀한 협력과 시민,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더욱이 올해는 행사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관광객 수요에 맞춘 환경 콘텐츠를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제2회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의 개최기간이 확정됨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축제 밑그림을 그려 나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